부산·경남, 희망과 치유의 등 밝혀

점등 법회 및 코로나19 극복 발원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도경 부산지사장

코로나 극복기도도 이어가
소상공 · 의료인 나눔 활동
도농 구분 없이 봉축 기념
"타인슬픔 보듬는 빛되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봉축 장엄등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을 밝혔다. 사진은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점등식.



부산 송상현 광장에 불을 켠 장엄등 모습. 축제 기간 동안 500여 장엄등이 불을 밝힐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봉축 장엄등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불을 밝혔다.

부산연등축제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나눔과 의료진 격려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불교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진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릴레이 기도에서 108배를 통해 십시일반 동참할 수 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각)는 4월 29일 남해 유배문학관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는 점등식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온 세상이 치유의 가피로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에서 회장 성각 스님은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한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참뜻을 알아야 한다"며 "인류의 화합과 공생을 위한 연등을 켜고 대광명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도 5월 5일 항남동오거리에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는 '희망과 치유의 등불'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원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점등의식 및 석가모니불 정근 탑돌이 등도 진행됐다.

진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불암)는 5월 2일 경남예술문화회관 공원광장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불암 스님, 도각 스님, 적민 스님, 진여 스님, 성륜 스님, 정혜 스님, 보광 스님 등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동참했다. 회장 불암 스님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코로나도 하루 속히 소멸돼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4월 30일 남부경찰서에서 봉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대각 스님, 김만수 남부경찰서장 등 신도들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진구연합회(회장 영제)는 5월 2일 부산 서면로터리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부산진구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산재와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계언론 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및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이어졌다. 감사패는 수궁사 춘제 스님이, 공로패는 육조사 법봉 스님, 약사암 태산 스님이 받았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도 5월 1일 부산 서부터미널 애플아울렛별관 앞에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견강암, 어버이날 '孝心 육개장' 눈길

5월 6일 500인분 전달

자비나눔 도량 부산 견강암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육개장을 전달했다.

견강암(주지 향공)은 5월 6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고동바위에서 '효심(孝心) 육개장'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견강암은 매월 2회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급식 및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육개장은 총 500인분으로 마련됐으며 도시락으로 포장해 찾아오는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기 위해 나눔 공양을 마련했다"며 "효는 불교의 중요한 덕목이다. 마을에서 뵙는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봉사 나눔을 실천해주는 정각원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견강암은 4월 13일과 20일 모라동 일대에 자장면 총 3000인분을 전달했으며 모라동 동사무소에서 소외가정을 추천받아 밑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상 통해 만나는 '반야참회' 개설

6월 1일 개설, 5개월 간…"참회는 수행의 기초"

구체적인 참회로 지혜 반야를 일으키는 〈반야참회〉가 영상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 스님은 6월 1일 반야참회 영상강의를 시작한다. 영상강의 반야참회는 108배와 자비도량참법 등 참회법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청정하게 하도록 돕는다.

이번 반야참회 영상강의는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자 혜룡 스님과 문답도 할 수 있다.

개강은 6월 1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개월간 진행된다. 교재는 〈반야참회〉로 동참비는 월 5만 원이다.

혜룡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범어사, 쌍계사, 화엄사 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반야참회 신행모임은 "참회는 불교 신행의 기초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참회법을 몰라 신행에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다"며 "기도와 수행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불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010)8995-0743


구체적인 참회로 지혜 반야를 일으키는 '반야참회'가 영상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책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 스님이 6월 1일 반야 참회 영상강의를 개강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시 재생, 사찰이 앞장서다

행복선원, 5월1일 행복문화제 '다시 봄 그리고 치유' 주제로

친환경 문화포교도량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 행복문화제를 개최했다. 또 행복문화제에서 부산행복네트워크 출범도 알렸다.

행복문화제는 다양한 전통공예 및 친환경 제품을 전시 소개하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발원하는 행사다. 행복문화제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주민들에게 치유의 장을 선사했다. 행복선원 측은 한지공예, 목공예, 그림, 사진 등 친환경 작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행복선원이 행복문화제를 열게 된 것은 사찰 탄생 배경과 관련이 깊다. 행복선원은 폐업한 목욕탕을 리모델링 해 도량으로 탈바꿈 한 곳이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행복선원은 2016년 개원 후 봉사신행모임 '자비회'로 지역사회 나눔과 포교에 앞장서 왔다.

2019년 10월 20일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북구도시재생환경공동체와 협약식을 진행해 폐업한 목욕탕을 인수,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990㎡, 총 4층 규모로 템플스테이관, 법당 및 종무소 등으로 구성하고 3월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행복선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몸의 때를 씻는 목욕탕서 마음의 때를 씻는 사찰로 거듭났다"며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행복선원은 앞으로 지역민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행복선원은 이름 그대로 행복이 쌓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재탄생이란 말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선원은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1 다시 봄 그리고 치유' 행복문화제를 행복선원 일대서 개최했다. 사진은 행복문화제에서 진행된 부산행복네트워크 출범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담정토문화원, 자비의 쌀 전달식

5월 4일 백미 1000kg 전달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이사장 고담)은 5월 4일 부산 천불정사에서 '고담정토문화원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고담정토문화원은 이날 자비의 쌀 1000kg(50kg 20포대)를 부산 금정구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에 희사했다. 자비의 쌀은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고담정토문화원 이사장 고담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소외되고 어두운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 설립을 계기로 자비실천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